

비논항 성분에 붙은 만주어 명사화소 -ngge의 기능

— 『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도 정 업*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비논항 성분에 붙은 -ngge의 주된 기능이 화제로 기능하는 비논항 성분을 다른 성분들과 구별하여 주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ngge가 붙은 성분은 문장 내에서 논항이거나 서술어이다. 그런데 -ngge가 붙은 성분이 비논항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용법은 본 연구의 자료인 『滿文老檔』의 분사 어미에 연결된 -ngge의 용례에서 19%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적으로 쓰인다. 명사화소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은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 5가지 유형의 용법은 모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문두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화제의 특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은 문장 내에서 화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ngge는 화제인 비논항 성분을 다른 성분들과 구별하여 주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강사

는 기능을 한다.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문두에 위치한 비논항 성분에 붙은 -ngge의 주된 기능이 화제로 기능하는 비논항 성분을 다른 성분들과 구별하여 주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비논항 성분에 붙은 -ngge의 기능을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는 만주어 명사화소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의 용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이 문장 내에서 화제의 역할을 하고, -ngge는 구별 표지로 기능함을 확인한다.¹⁾

일반적으로 -ngge가 붙은 성분은 문장 내에서 논항이거나 서술어로 쓰인다. (1)은 논항인 성분에 붙은 -ngge의 예이다. (2)는 서술어인 성분에 붙은 -ngge의 예이다.²⁾

- (1) 가. *weile be deribu-re-ngge niyalma, weile*
 work ACC begin-NPST.PTCP-NMLZ person work
mute-re-ngge abka kai, (命71:1a)
 be_achieved-NPST.PTCP-NMLZ heaven PTL

일을 시작하는 것은 사람이다.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
- 1) 전형적인 용법으로 쓰일 때 -ngge는 논항이나 서술어를 이룬다. 따라서 비전형적인 용법으로 쓰는 -ngge를 ‘비논항/비서술어에 붙은 -ngge’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전형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ngge는 문두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ngge가 서술어를 이룰 가능성이 낮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논항 성분에 붙은 -ngge’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 2) 『滿文老檔』은 天命 시기 81책, 天聰 시기 61책, 崇德 시기 38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예문에서는 편의상 天命편은 命, 天聰편은 聰, 崇德편은 崇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가령, 聰32:7a는 天聰편 32책 7a쪽을 나타낸다.

나. *ninggun biya-de burula-me tuci-fi*
 six month-DAT flee-SIM.CVB come_out-ANT.CVB
guwe-he-ngge be wacihiya-me
 escape-PST.PTCP-NMLZ ACC complete-SIM.CVB
gai-ha, (命5:17a)
 take-PST.PTCP

6월에 패주하며 탈출하여 도망가 있던 사람들을 완전히 잡았다.

(2) 가. *abka, han be tere-se gurun be*
 heaven han ACC that-PL country ACC
baha-bu-fi, cooha hūsun nonggi-bu-ha-ngge
 get-CAUS-ANT.CVB soldier power add-CAUS-PST.PTCP-NMLZ
kai, (命71:2a)
 PTL

하늘이 한(汗)으로 하여금 저들 나라를 얻게 하여서, 군세를 늘리게 한 것입니다.

나. *ere weile be uttu koro o-bu-me*
 this work ACC like_this wound become-CAUS-SIMCVB
monggo de bu-re-ngge kai, (命4:7b)
 mongol DAT give-NPST.PTCP-NMLZ PTL
 이 일을 이렇게 원한 삼도록 몽골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분사 어미에 연결된 -ngge가 붙은 문두 성분이 논항이나 서술어를 이루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용례에서 -ngge가 붙은 성분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을 보이는 만주어에서 문장의 가장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술어일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용례에서 중요한 것은 -ngge가 붙은 성분이 논항인지 논항이 아닌지의 여부이다.

(3) 가. *aisin se-re-ngge, neneme juwan yan aisin*
gold say-NPST.PTCP-NMLZ formerly ten tael gold
be lii diyan kui, aita bene se-he
 ACC *lii diyan kui aita send.IMP say-PST.PTCP*
seme benji-he manggi, (命54:4b)
 COMP *send-PST.PTCP after*

금을, 이전에 열 냥의 금을 Lii Diyan Kui는 Aita가 보내라고
 했다며 보내온 후

나. *i jeo de meni cooha te-re-ngge,*
i jeo DAT 1.PL.GEN(EXCL) soldier sit-NPST.PTCP-NMLZ
mao wen lung be tuwakiya-me te-mbi, (聰4:23b)
mao wen lung ACC watch-SIM.CVB sit-NPST

의주에 우리 군대가 있는 것은, 모문룡을 감시하고자 있다.

예문 (3)에서 -ngge가 붙은 성분은 동사의 의미에 의해서 함의되는 의미역을 구현하지 않는다. (3가)의 *aisin serengge*는 뒤이어 서술되는 내용이 *aisin*에 관한 것이지만 동사와 문법적 관계를 맺지는 않는다. (3나)의 *i jeo de meni cooha terengge*도 동사인 *te-*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시해주지만 동사와는 문법적 관련이 없다. (3)에 제시된 예문을 통하여 동사의 논항으로 기능하지 않는 비논항인 성분에 붙은 -ngge의 용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문법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룬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주어에서 -ngge가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성분은 쉽게 문증된다. 『滿文老檔』에서 분사 어미에 연결된 -ngge의 용례는 1,527개가 나오는데, 그 분포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성분 유형별 -ngge의 분포

	논항	서술어	비논항	합계
용례수	905	332	290	1,527
비율	59.3%	21.7%	19%	100%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약 19%에 해당하는 290개 용례가 비논항 성분에 붙은 -ngge의 용례이다.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ngge가 비논항 성분에 붙는 문법 현상은 생산적으로 나타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의 유형을 분석하여 그 구문에서 -ngge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ngge의 특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의 용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검토한 자료는 『滿文老檔』이다. 『滿文老檔』은 394,287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1607년부터 1636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는 만주문으로 된 당안 37책을 중초하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滿文老檔』은 큰 틀에서 원래의 당안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청나라의 개국 전후인 17세기 초반의 문법 현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滿文老檔』은 遼寧民族出版社에서 2009년에 영인한 『內閣藏本滿文老檔』이며, 간략한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滿文老檔』 서지 사항

26函 180冊(太祖朝 10函 81冊, 太宗朝 16函 99冊)

『滿文老檔』 內閣藏本 Tongki fuka sindaha hergen i dangse

四周雙邊, 白口, 單魚尾, 無行格, 半葉 7行

광곽 크기 28.5 cm × 18.3 cm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ngge를 논의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화제의 정의와 확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은 화제이고, 각 유형에서의 -ngge의 공통된 기능이 화제인 비논항 성분을 다른 성분들과 구별하여 주는 것임을 밝힐 것이다. 5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며 결론을 대신한다.

2. 선행연구

현재까지 만주어의 -ngge를 검토한 연구들은 주로 형태적인 관점과 의미적인 관점에서 -ngge를 분석하였다. 여러 연구들에서 -ngge의 이형태는 -ngge형과 ningge형이 있고, -ngge가 명사가 아닌 성분을 명사화시키는 의존 명사라고 본다.³⁾

박은용(1969, p. 50)과 津曲敏郎(2002)는 -ngge를 의존 명사로 보았다. Gorelova (2002)는 -ngge를 명사화소(nominalizer)라고 하고, ningge는 명사형성소(substantivizer)라고 하였다.⁴⁾ 그러나 -ngge와 ningge는 구별되어 쓰이는 것이 아니다. 早田輝洋(2015)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ningge는 앞선 성분이 n으로 끝나는 명사나 형용사일 때 나타나는 명사화소 -ngge의 이형태일 뿐 의미상으로는 -ngge와 차이가 없다.

최동권(2009)은 -ngge가 한국어의 ‘것’에 대응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

3)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는 -ngge를 -ngga/-ngge/-nggo의 이형태로 나타낸다고 보고, 이 이형태들이 명사에 연결되어 형용사화시키거나, 형용사나 -ha로 끝나는 분사에 연결되어 명사화시킨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早田輝洋(2015)는 명사화소 -ngge/-i-ngge/ni-ngge와 형용사화 접미사 -ngga/-ngge/-nggo가 원래 구분되던 형태소임을 주장하였다.

4) Nominalizer와 substantivizer는 모두 명사가 아닌 요소를 명사화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substantivizer라는 용어의 번역어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사화소(nominalizer)와의 구분을 위해서 substantivizer를 ‘명사형성소’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에서는 -ngge가 ‘사물’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서술어와 함께 쓰일 때는 ‘강조, 단정, 확인’과 같은 양태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특정한 의미를 지니지 않은 채 선행하는 문장을 명사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ngge가 대용어로 쓰인다고 보는 것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이 연구는 서술어와 논항에 붙은 -ngge의 용법만 분석하였고, 본 연구에서 다룬 비논항 성분에 붙은 -ngge의 기능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ngge의 형태적인 특징과 의미적인 특징을 밝힌 논의 외에도 -ngge가 정보구조의 측면에서 검토한 논의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최학근(1976)과 Gorelova (2002)가 있다. 최학근(1976, p. 2)은 주어를 강조하는 경우에 동사에 -ngge를 연결하여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Gorelova (2002, p. 416)에서는 문두에서 쓰이는 논항에 붙은 -ngge가 문장 내에서 화제 표지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5)는 최학근(1976)에서 제시된 예이고, (6)은 Gorelova (2002)에서 제시된 예이다.⁵⁾

- (5) 가. *gūni-ci mukden se-re-ngge*
 think-COND.CVB mukden say-NPST.PTCP-NMLZ
 abka-i banji-bu-ha ten i
 heaven-GEN live-CAUS-PST.PTCP base GEN
 ba (盛京賦 序, 최학근 1976: 2)⁶⁾
 place
 생각건대, 성경(盛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만든 기지다.
 나. *fonji-ha-ngge amba kai (論語, 최학근 1976: 2)*
 ask-PST.PTCP-NMLZ big PTL

5) 예문에 제시된 주석(gloss)과 번역은 본 연구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6) 최학근(1968: 21)에는 mukden으로 바로 쓰여 있고, 최학근(1976: 2)에는 mukten으로 잘못 쓰여 있어서 수정하여 제시한다.

물은 것이 크다.

- (6) 가. *gosin se-re-ngge niyalma, jurgan*
 mercy say-NPST.PTCP-NMLZ person righteousness
se-re-ngge acabun kai (Gorelova 2002: 412)
 say-NPST.PTCP-NMLZ harmony PTL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조화이다.

- 나. *niyamniya-ra-ngge gabta-ra-ngge*
 shoot_from_horseback-NPST.PTCP-NMLZ shoot-NPST.PTCP-NMLZ
 gemu sain (Gorelova 2002: 416)
 all good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과 활을 쏘는 것이 모두 좋다.

두 예문은 모두 정언문(categorical sentences)라는 특징이 있고, -ngge는 화제인 성분에 연결되었다. 즉, 최학근(1976)에서 주어(를) 강조하는 경우라고 언급한 것은 Gorelova (2002)에서 화제 표지로 쓰인다고 한 것과 같은 현상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 더 나아가 Gorelova (2002)는 serengge가 문두에 나타나는 논항과 함께 쓰여서 화제 표지로 쓰이는 경우에 주목하였다.

- (7) *hiyoošun deocin se-re-ngge*
 filial duty_of_a_younger_brother say-NPST.PTCP-NMLZ
 tere gosin be yabu-re fulehe
 that mercy ACC act-NPST.PTCP root
 dere (Gorelova 2002, p. 414)
 PTL
효와 동생에 대한 우애라는 것, 그것은 자비를 행하는 뿌리일 것이다.

Gorelova (2002)는 (7)과 같은 구성은 좌향 전위, 또는 좌분리(left dislocation) 구문이며, tere가 문법적 주어이고 serengge 앞에 위치하는 성분은 화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ngge가 붙은 성분이 화제로 기능하는 것은 serengge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Gorelova (2002)는 다른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한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serengge라는 특정 단어에 한하여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ngge는 ‘사람’이나 ‘사물’ 같은 대상을 지칭할 때 대응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단지 명사가 아닌 성분을 명사화시키는 기능만 담당하기도 한다. 이에 더하여 serengge의 경우 문장에서 가장 앞에 오는 성분 뒤에 위치하여 화제 표지로 쓰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밝힌 -ngge의 기능은 논항이나 서술어에 붙은 경우에 한정된 경우가 많으며, 비논항에 붙은 용법은 serengge와 같이 특정 어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을 유형별로 검토함으로써 비논항 성분에 붙은 -ngge의 기능이 문장에서 화제로 기능하는 성분을 구별하여 주는 표지임을 밝힐 것이다.

3. 화제의 정의와 확인

3.1. 화제의 정의

정보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화제와 초점이며, 이와 관련하여 구 정보(old information), 신정보(new information), 주어집성(givenness)의 개념이 있고, 화제의 특징으로는 문두성, 대하여성(aboutness) 자질이나 한정성(definiteness) 내지 특정성(specificity) 자질이 있다.

문장에서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제이

고, 그것의 서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점이다. 발화 과정에서 맥락이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말을 하는 경우는 없다. 발화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 최윤지(2016, pp. 35-3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장의 그것에 대한 것’(what the sentence is about)이라는 개념의 ‘대하여성’(aboutness)이 가지는 모호성과 내성적 판단에 의존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견해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담화가 어떠한 대상에 대한 말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이미 인식할 수 있음을 전제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화제는 또한 이미 주어진 정보이다.

Prince (1992, p. 298)에 따르면 구정보의 의미는 ‘한정성’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한정적인 것이 구정보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제는 문두성을 지닌다. 최윤지(2016, p. 36)에서는 문두 성분(Halliday, 1967), 주어(Chafe, 1976), 형태 표지 ‘wa’(Kuno, 1972, 1978), 좌분리 혹은 ‘about’ 성분(Reinhart, 1981), IP 외부 좌분리 성분(Vallduvi, 1992), 악센트 없는 대명사(Lambrecht, 1994) 등 화제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들을 나열하였는데, 용어는 다르지만 문두성은 화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정민(1992, p. 398)에서도 화제란 한정적 명사구로서 문두에 위치하는 것이 전형적이고, 말하기 동사에 내포된 경우에는 문체상 문두가 아닌 위치로 물러날 수 있다고 하였다.

3.2. 화제의 확인

일반적으로 초점과 화제를 확인하는 방법은 “철수가 무엇을 했니?”와 “철수는 사과를 먹었어”처럼 의문문과 그에 대한 대답에서 신정보와 구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사과를 먹었어’는 신정보이기 때문에 초점이고, ‘철수는’은 이미 질문에서 주어진 정보이기 때문에 화제이다. 그런데 만주어의 경우 문헌에 의존하는 바가 크므로 문답 형식의 초점과 화

제 확인은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텍스트나 상황 속에서 환기된 성분이 언급되는 경우나 문장 내 한 성분이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논항이 아닌 경우를 검토하여 화제를 확인하는 방법이 주로 적용된다.

- (8) 가. 옛날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
 나. 그 책 좀 줄래?

(8)은 텍스트나 상황 속에서 환기된 성분이 언급되며 화제로 기능하는 것이다. -ngge가 붙은 성분이 이러한 유형의 화제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9) 가. minggan niyalma be kadala-ra niyalma
 thousan person ACC manage-NPST.PTCP person
 o-ci, minggan niyalma-i baita
 become-COND.CVB thousand person-GEN matter
 tooka-mpi kai, tere baita
 postpone-NPST PTL that matter
 se-re-ngge, gemu han i amba
 say-NPST.PTCP-NMLZ all han GEN big
 baita kai, (命6:8a)
 matter PTL
 1000명을 관할하는 사람이면 1000명의 일이 지체될 것이다.
그 일이라 하는 것은 모두 한(汗)의 큰 일이다.
 나. han inu majige omi-ha, beise
 han also small drink-PST.PTCP beile.PL
 ambasa geren hafasa gemu
 high_official.PL many officer.PL all
 beye-be targa-hakū balai omi-ha,
 body-ACC avoid-PST.PTCP.NEG blindly drink-PST.PTCP

tere omi-ha-ngge, ... geren hafasa buye-kini
 that drink-PST.PTCP-NMLZ ... many officer love-OPT
 seme tuttu dere. (聽48:16b-17a)
 COMP like_that PTL

한(汗) 역시 조금 마셨다. 버일러들, 대신들, 여러 관원들은 모두 몸을 사리지 않고 마음껏 마셨다. 그 마신 것은 ... 여러 관원들이 사랑하기 바란다고 그런 것일 것이다.

문장 내 한 성분이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논항이 아닌 경우에 화제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ngge가 붙는 비논항 성분이 화제로 기능하는 것은 모두 이 유형에 속한다.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이 유형의 화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⁷⁾

- (10)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 나. 코끼리가 코가 길다.

(10)과 같은 구성은 전체-부분의 관계를 보이는 두 명사구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만주어에서 -ngge가 붙은 성분이 화제로 기능하는 것은 5가지로 나타난다. 우선, 후술되는 명사와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이 동일한 대상을 표현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ngge가 붙은 동사가 문장의 서술어인 동사를 반복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로는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이 앞으로 서술될 대상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는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이 후술되는 문장에서 서술될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은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과 뒤에 서술되는 성분이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보이는 경우이다. 앞서 『滿文老檔』에서 분사 어미에

7)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논항이 아닌 성분이 화제로 기능하는 것은 언어보편적으로 나타난다. Li & Thompson (1976, pp. 462-463)에서는 이러한 예로 라후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의 예문을 제시하였다.

(12) 가. *abka-i fejergi niyalma-i abka-i fejergi*
 heaven-GEN under person-GEN heaven-GEN under
se-he-ngge, tere yala unenggi gisun kai, (崇8:19a)
 say-PST.PTCP-NMLZ that truly true word PTL
 “천하는 사람들의 천하이다”라는 말은 참으로 진실한 말이다.

나. *yalu-ha morin šada-hakū,*
 ride-PST.PTCP horse become_tired-PST.PTCP.NEG
cooha be ujula-fi gai-fi
 soldier ACC head-ANT.CVB take-ANT.CVB
yabu-re beise ambasa emke hono
 go-NPST.PTCP beile.PL high_official.PL one yet
ufara-hakū-ngge, tere abka aisila-ha
 die-PST.PTCP.NEG-NMLZ that heaven help-PST.PTCP
se-re-ngge tere kai, (命9:2a-2b)
 say-NPST.PTCP-NMLZ that PTL
 탄 말이 지치지 않고, 군사를 앞서서 통솔하여 다니는 Beile
 들, 대인들 한 명도 죽지 않은 것, 그것이 하늘이 도왔다 하
 는 것 바로 그것이다.

다. *tana aisin menggun be boobai*
 pearl gold silver ACC treasure
se-re-ngge, tere ai boobai, (命23:5a)
 say-NPST.PTCP-NMLZ that what treasure
 진주, 금, 은을 보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보배인가.

예문에서 보이는 문장 형식은 한국어의 제시어 구문과 거의 동일하다. 제시어는 한국어에서 무표지로 나타나며, “빵, 그것은 맛있다”나 “세종, 온 국민이 그를 안다”와 같이 앞으로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김영희(1989, p. 118)에서는 주제어와 제시어를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기능을 정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13) 가. 주제어의 기능

말화 상황이나 담화 상 들을이로서 예상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지시 대상을 말할이가 거듭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이야기하려는 내용(평설)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들을이로 하여금 확인시킴.

나. 제시어의 기능

말화 상황이나 담화 상 들을이로서 예상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지시 대상을 말할이가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이야기하려는 내용(언명)이 무엇에 관련된 것인가를 들을이로 하여금 알게 함.

(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 화제와 제시어의 특징과 기능은 다르다. 일반 화제와 제시어의 가장 다른 특징은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김영희(1989)와 이선웅(2005), 함병호(2016) 등의 연구에서는 제시어가 일반 화제와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반면에 최윤지(2016)에서는 제시어 구문을 전형적인 화제 구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각 논의에서 제시어 구문이 전형적인 화제 구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제시어가 문장 내에서 화제로 기능한다는 점은 부정되지 않는다. Gorelova (2002)의 주장과 한국어의 제시어 구문을 논의한 연구들의 의견들을 검토하여 보았을 때, -ngge와 후술되는 대명사가 동일한 대상을 표현하는 구문에서 -ngge가 붙은 문장 성분은 문장 내에서 화제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만주어의 제시어 구문에서 화제인 비논항 성분은 -ngge에 의해서 다른 성분들과 구별될 수 있다. 따라서 -ngge는 화제인 성분을 구별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4.2. 서술어 반복

만주어 구문에서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의 서술어와 문장 전체의 서술어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14) 가. <i>tere</i>	<i>elcin</i>	<i>be</i>	<i>wa-ha-ngge,</i>
that	emissary	ACC	kill-PST.PTCP-NMLZ
genggiyen han	i	cahar	de
genggiyen han	GEN	cahar	DAT
takūra-ha	juwe	niyalma	be, cahar
delegate-PST.PTCP	two	person	ACC cahar
wa-ha	seme	tašara-me	donji-fi,
kill-PST.PTCP	COMP	err-SIM.CVB	listen-ANT.CVB
karu	seme	wa-ha, (命16:6a)	
revenge	COMP	kill-PST.PTCP	

그 사신을 죽인 것은, Genggiyen Han이 Cahar에 보낸 두 사람을 Cahar가 죽였다고 잘못 듣고서 보복이라며 죽였다.

나. <i>nikan</i>	<i>i</i>	<i>takūra-ha</i>	<i>giyansi</i>
Chinese	GEN	delegate-PST.PTCP	spy
<i>halbu-re,</i>		<i>jafu</i>	<i>bithe</i>
give_entrance_to-NPST.PTCP		directive	letter
<i>ali-me</i>		<i>gaija-ra,</i>	<i>muksan</i>
receive-SIM.CVB		take-NPST.PTCP	stick
<i>dagila-ra</i>	<i>ai ai</i>	<i>ehe</i>	<i>be</i>
prepare-NPST.PTCP	all kinds	bad	ACC
<i>deribu-re-ngge,</i>		gemu	tulergi de
begin-NPST.PTCP-NMLZ		all	outside DAT
te-he	šusai	sa,	hafasa-i
sit-PST.PTCP	Licentiate	PL	officer.PL-GEN

hūncihin, daci banji-ha
 relative from_the_beginning live-PST.PTCP
 ambasa suwe deribu-mbi kai, (命66:11b-12a)
 high_official.PL 2.PL.NOM begin-NPST PTL

명이 파견한 첩자를 들이고, 차부(箭付)받아 갖고, 몽둥이를 준비하고, 갖가지 악행을 시작하는 것은, 모두 밖에서 살던 생원들과 관원들의 친척과 본래 지내던 대신들 너희가 시작한다.

(14)의 예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ngge가 붙은 wa- (죽이다), deribu-(시작하다)와 같은 서술어는 문장 전체의 서술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문 역시 앞으로 어떠한 서술어가 등장할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제시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4)에 제시된 구문이 독립된 문장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서술어가 반복되는 구문에서는 시제 불일치 현상이 빈번히 일어난다.

(15) 가. tere-i ala-ra-ngge, cooha ice
 that-GEN report-NPST.PTCP-NMLZ soldier new
 ninggun de tuci-mbi, yung ping be
 six DAT come_out-NPST yung ping ACC
 ka-mbi seme ala-ha, (聽28:4a)
 surround-NPST COMP report-PST.PTCP

그가 알려진 것은, “병사가 초옛세에 나온다. 영평을 포위할 것이다”라고 알렸다.

나. amin beile i hendu-re-ngge, bi
 amin beile GEN speak-NPST.PTCP-NMLZ 1.SG.NOM
 niyalma seme ainu banji-ha ni, ... wehe
 person COMP why be_bom-PST.PTCP PTL ... stone

banji-ha bi-cina seme hendu-nbihe, (聰30:3a-3b)
 be_bom-PST.PTCP be-OPT COMP speak-PST
Amin 버일러가 말한 것은, ‘내가 사람으로 어찌 태어났는
 가. ... 돌로 태어났으면 좋았을텐데’라고 말했었다.

(15)에서 서술되는 내용은 모두 과거에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ngge가 붙은 성분은 *ala-ra*나 *hendu-re*와 같이 비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이 후행하는 성분의 시제를 받기 때문이다.⁸⁾

주목할 만한 점은 만주어에서 서술어 반복이 아닌 논항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ngge가 아닌 *be*가 부가된다는 점이다.

(16) 가. *sargan* *be,* *eigen* *hūlha-ci* *ainu*
 wife ACC husband steal-COND.CVB why
tafula-hakū seme *sargan* *be*
 advise-PST.PTCP.NEG COMP wife ACC
wa-ha. (命27:9b-10a)
 kill-PST.PTCP
아내를, 남편이 도적질했는데, 어찌 말리지 않았는가 하여
아내를 죽였다.
 나. *mederi* *tun* *de* *akda-fi*
 sea island DAT trust-ANT.CVB
daha-rakū *bi-sire* *gurun be,*
 surrender-NPST.PTCP.NEG be-NPST.PTCP people ACC
amba *jaha* *ara-fi* *mederi onggo*
 big light_boat make-ANT.CVB sea river_port

8) 대등 접속문 구성에 한하여 논의하였으나, 분사 어미 -ra의 의미가 비어 있으면서 마지막에 오는 성분의 어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받는 현상은 도정업(2018)에서 검토된 바 있다.

be doo-fi, tun i gurun be
 ACC cross-ANT.CVB island GEN people ACC
 gemu gai-ha. (命5:16b)
 all take-PST.PTCP

바다와 섬에 의지하여 항복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큰 나룻배를 만들어 바다 항구를 건너서 섬의 사람들을 모두 취했다.

위의 예문에서 (16가)의 sargan (아내)이 이미 문두에서 실현되었으나, 동사 wa-(죽이다)의 sargan이 다시 동사 앞에서 목적어로서 나타난다. (16나)는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구 중에서 긴 명사구가 문두에 나타나고 짧은 명사구가 동사의 앞에서 목적어로 나타난다.

be와 결합한 성분이 뒤에서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 목적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목적어가 아닌 문장 성분을 대상으로 하여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17) 가. fujiyang munggatu, ... iogi karda,
 fujiyang munggatu ... iogi karda
 ere jakūn niyalma be, ... enteke
 this eight person ACC ... this_kind_of
 ai ai weile be, munggatu i
 what what work ACC munggatu GEN
 jergi niyalma de afabu-ha, (命42:1b-2b)
 sequence person DAT order-PST.PTCP
 부장 Munggatu, ... 유격 Karda, 이 여덟 사람들, ... 이러한
 갖가지 일을 Munggatu 등의 사람에게 맡겼다.
 나. bithe de ara-ha jaka be,
 letter DAT write-PST.PTCP thing ACC
 dulimba-i amban, han i duin jušen be

center-GEN big han GEN four jušen ACC
 gosi-me uji-re de, tere
 love-SIM.CVB raise-NPST.PTCP DAT that
jaka ak=ün, (聰2:6a)
 thing there_is_not=Q

글에 적은 물품을, 중앙의 큰 한(汗)이 여진인 네 명을 사랑하여 보살피는데, 그 물품이 없겠는가.

(17가)를 보면 *ere jakūn niyalma* (이 여덟 사람)는 *munggatu i jergi niyalma* (Munggatu 등의 사람)와 지시 대상이 동일하다. 그러나 *ere jakūn niyalma*는 *be*가 결합되어 있고, *munggatu i jergi niyalma*는 *de*가 결합되어 있다. (17나)를 보면 *bithe de araha jaka* (글에 적은 물품)는 *tere jaka* (그 물품)와 지시 대상이 동일하다. 그러나 *bithe de araha jaka*는 *be*가 결합되어 있고, *tere jaka*는 부가된 격 표지가 없다. 격 표지가 부가되어 있지 않더라도 *akū*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tere jaka*가 문장에서 주어임을 알 수 있다. 이 예문들은 *be*가 목적어를 구별하여 명시하여 주는 전형적인 기능과는 달리 화제인 비논항 성분을 구별하여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서술어 반복 현상에서 부가되는 -ngge와 관련지어보면 -ngge가 본래 가진 의미와는 관계없이 화제인 비논항 성분을 구별하여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3. 서술 대상 제시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이 앞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는지를 제시하여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용법으로 -ngge가 쓰일 때, -ngge는 *se-*(말하다)의 비과거형인 *sere*에 붙어서 *serengge*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serengge*의 용례는 Gorelova (2002)에서 제시한 화제와 유사해보이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Gorelova (2002)에서 제시된 *serengge*

예문은 ‘A라는 것, A’는 B이다’라는 형식이다. 그러나 본 절의 유형에 속하는 serengge 예문은 ‘A라는 것, B가 C이다’ 또는 ‘A라는 것, B가 C한다’와 같이 앞으로 서술하는 문장이 어떠한 대상을 이야기하는지 보여준다. (18)이 그러한 서술 방식을 보여주는 예이다.

(18) 가. *tere hūhuri se-re-ngge,* fucihi be
 that good_luck say-NPST.PTCP-NMLZ Buddha ACC
gūni-me ere beye-de beye-be
 think-SIM.CVB this body-DAT body-ACC
jobo-bu-me akūmbu-ci, hūhuri
 suffer-CAUS-SIM.CVB endeavor-COND.CVB good_luck
isi-fi amaga jalan de sain
 reach-ANT.CVB later generation DAT good
ba-de banji-ki seme hūhuri
 place-DAT be_born-OPT COMP good_luck
bai-mbi kai, (命4:24b)
 look_for-NPST PTL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생각하며 이 몸을 스스로 수고롭게 하며 온 힘을 쏟으면 복이 와서 후세에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자 하여 복을 구한다.

나. *angga i weile se-re-ngge,* mini
 angga GEN crime say-NPST.PTCP-NMLZ 1.SG.GEN
elcin be batangga yehe de
 emissary ACC hostile yehe DAT
huthu-fi bu-fi wa-bu-ha, (命57:4a)
 tie_up-ANT.CVB give-ANT.CVB kill-CAUS-PST.PTCP

Angga의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사신을 원수인 Yehe에게 묶어서 주고 죽이게 했다.

다. *dain se-re-ngge* iletu afa-me
 war say-NPST.PTCP-NMLZ obvious fight-SIM.CVB
 mangga budun ete-re anabu-re

strong weak win-NPST.PTCP be_defeated-NPST.PTCP
 be sa-mbi=dere, (崇8:23a)
 ACC know-NPST=PTL

전쟁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싸워서 강한지 약한지 이길지
 질지를 알겠지.

그런데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이 앞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는지를 제시하여 주는 경우가 serengge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 제시된 예문과 같이 서술어에 바로 -ngge가 붙은 경우도 있다.

- (19) 가. *buta-ra-ngge,* *daci* *jakūn*
 hunt-NPST.PTCP-NMLZ from_the_beginning eight
beile *boo emte tanggū* *haha sinda-fi,*
beile *house one_each hundred* *male put-ANT.CVB*
baha *jaka be meni meni*
 get.PST.PTCP thing ACC each
gai-mbihe, (命44:11b)

take-PST

사냥하는 것은, 원래 여덟 Beile 집이 장정 100명씩을 보냈고, 얻은 물건은 각자 가졌었다.

- 나. *ishunde* *hūdaša-ra-ngge,* *meni meni*
 mutually trade-NPST.PTCP-NMLZ each
buye-re *ciha, juwe yaya aisi* *be*
 desire-NPST.PTCP desire two every profit ACC
gūni-mbi, (聰9:5a)

think-NPST

서로 매매하는 것은, 각자 바라는 바람이고 둘 다 이익을 생
 각합니다.

다. *etuku aci-re-ngge losa eihen*
 clothing load-NPST.PTCP-NMLZ mule donkey
isi-bu-re tuwa-me
 be_enough-CAUS-NPST.PTCP look-SIM.CVB
 tuci-bu, (聰41:15a)
 come_out-CAUS.IMP
 옷 신는 것은, 노새와 당나귀를 충족시키는 것 보고 (노새와
 당나귀를) 내라.

(19가)의 *butar a* (사냥하다), (19나)의 *hūdašara* (매매하다), (19다)의 *acire* (신다)는 *-ngge*가 직접 붙어 있으며, 이어지는 서술에서는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과 관련된 서술을 자세히 하고 있다.

본 절에서 검토한 *-ngge*가 붙은 서술 대상을 제시하는 비논항 성분은 전체 서술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이며, *-ngge*는 비논항 성분이 그 대상이라는 것을 구별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즉, *-ngge*는 하나의 구별 표지가 되어 다른 성분들과 구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4.4. 판단의 근거 제시

명사화소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이 후술되는 문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구성은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에 뒤이어서 대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서술이 이어진다. 이때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은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 가. *suwe, mini te-hei bi-sire*
 2.PL.NOM 1.SG.GEN sit-DUR.CVB be-NPST.PTCP
de, uttu jušen be wa-fi
 DAT like_this jušen ACC kill-ANT.CVB

gene-re-ngge, maitu dagila-ra-ngge,
 go-NPST.PTCP-NMLZ mace prepare-NPST.PTCP-NMLZ
meni aba cooha gene-he amala, suwe
 1.PL.GEN(EXCL) hunt soldier go-PST.PTCP after 2.PL.NOM
ekisaka bi-mbi=o, (命66:11b)
 quiet be-NPST=Q

너희들이, 내가 주둔하며 있을 때, 이렇게 여진인을 죽이고 가는 것과 몽둥이 준비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사냥가거나 출병한 후에는, 너희가 잠잠하게 있겠는가.

나. *suwe angga de aca-ki seme*
 2.PL.NOM mouth DAT be_in_harmony-OPT COMP
gisure-mbime,⁹⁾ karun meni
 speak-NPST.be.SIM.CVB outpost_sentry 1.PL.GEN(EXCL)
ba-de ibe-fi ukanju ali-me
 place-DAT advance-ANT.CVB fugitive receive-SIM.CVB
gaija-ra, gurun be ebsi ibe-me
 take-NPST.PTCP country ACC hither advance-SIM.CVB
te-bu-re, hoton hecen
 sit-CAUS-NPST.PTCP castle castle
dasa-ra-ngge, suweni gisun yala
 repair-NPST.PTCP-NMLZ 2.PL.GEN word truly
mujilen ci tuci-kekūbi kai, (聰2:17b)
 mind ABL come_out-PST.NEG PTL

너희가 입으로 화친하자고 말하면서도, 초소는 우리 땅에 진입하고 도망자는 반아서 취하고 백성을 이쪽으로 진입해서 살게 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것(을 보니), 너희의 말이 진심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 *si šang bu-re seme*
 2.SG.NOM reward give-NPST.PTCP COMP

9) mbime는 비과거 종결 어미 mbi와 bime가 결합하여 생긴 어형이다.

jugūn i cooha be wa-ha manggi, tere
 way GEN soldier ACC kill-PST.PTCP after that
 be yang du tang donji-fi, niowanggiyaha
 ACC yang du tang listen-ANT.CVB niowanggiyaha
 i jase be tuci-fi hūlan
 GEN border ACC come_out-ANT.CVB hūlan
 i golo be dosi-re cooha be
 GEN province ACC enter-NPST.PTCP soldier ACC
 amca-fi amasi gama-ha, (命8:27a-27b)
 chase-ANT.CVB backward take-PST.PTCP
 (여진 군사가 명나라 병사가 네 길로 나왔던 것 중, 세 길의
 병사를 죽인 후, 그 소식을 양 도당이 듣고서 청하(淸河)의
 경계를 나와 Hūlan로(路)에 들어가는 (명나라) 병사를
 따라가서 도로 이끌고 갔다.

나. *dabsun fuifu-re niyalma be*
 salt boil-NPST.PTCP person ACC
bargiya-ha-ngge, ujuangga ambasa-i
 gather-PST.PTCP-NMLZ first high_official.PL-GEN
 boigon bargiya-ha uthai bi-kini, buya
 family gather-PST.PTCP then be-OPT low
 niyalma-i juse sargan be sinda-fi meni meni
 person-GEN child.PL wife ACC put-ANT.CVB each
 boo-de unggi. (命58:8a)
 house-DAT send.IMP

소금 끓이는 사람을 소집한 것 중, 1등 대신들의 가호에서
 소집한 것은 그대로 두어도 좋다. 소인의 처자식은 놓아주
 어 각자의 집으로 보내라.

다. *bolgo de hūdaša-ha-ngge seke juwan,*
 bolgo DAT trade-PST.PTCP-NMLZ sable_pelt ten
 ere ukanju gama-ha. (崇5:8a)
 this fugitive take-PST.PTCP

Bolgo에서 매매한 것 중, 담비 가죽 10장을 이 도망자들이 가져갔다.

(21가)는 네 길로 나온 명나라 병사 중 세 길로 나온 병사가 죽임을 당하자 양 도당이 나머지 한 길의 병사를 후퇴시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즉, 명사화소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에서 서술한 nikan cooha duin jugūn be tucike bihengge와 뒤에 서술되는 내용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보인다. (21나)는 소금을 끓이는 사람을 소집한 것 중 1등 대신들의 가호에서 소집한 것과 소인들의 가호에서 소집한 것을 다르게 처리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21나)의 dabsun fuifure niyalma be bargiyahangge도 뒤에 서술되는 내용과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보인다. (21다)의 담비 가죽 10장은 Bolgo에서 매매한 것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21다)의 bolgo de hūdašahangge 역시 뒤이어 서술되는 내용과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보인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보이는 구문에서 비논항인 성분은 -ngge가 아닌 be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be는 분사 어미와 결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명사와 결합한다.

- (22) 가. *yengge i emu tangū cooha be,*
 yengge GEN one hundred soldier ACC
 susai be siowan juce de te-kini, jai
 fifty ACC siowan juce DAT sit-OPT and
 susai be jaogiya de te-kini, (命60:14b)
 fifty ACC jaogiya DAT sit-OPT

Yengge의 병사 100명을, 50명이 Siowan Juce에 주둔하기 바란다. 그리고 50명이 Jaogiya에 주둔하기 바란다.

나. jai *nikan* *be* jušen *i* sinda-ha
 again Chinese ACC jušen GEN put-PST.PTCP
 karun *i* siden siden *de* emu
 outpost_sentry GEN space space DAT one
 ba-de *duite* *nikan* *be*
 region-DAT four_each Chinese ACC
 sinda, (命34:17b)

put.IMP

또 한인을 여진인이 설치한 초소의 사이사이에 한 장소에 한인 네 명씩을 두라.

다. *ere-i* *amala ilan* *ukanju* *gene-he* *be*,
 this-GEN after three fugitive go-PST.PTCP ACC
 juwe niyalma *be* sa-me *gai-habi*,
 two person ACC know-SIM.CVB take-PST
 emu niyalma *be* jušen seme amasi
 one person ACC jušen COMP backward
 ungg-i-me, *bele* *dabsun* *bu-fi*, (命16:1b)
 send-SIM.CVB *hulled_rice* *salt* *give-ANT.CVB*

그 뒤에 세 도망자가 간 것을, 두 사람을 알아차려 잡았고, 한 사람을 여진인이라 하여 되돌려 보내면서 쌀과 소금을 주고서,

(22가)는 *yengge i emu tanggū cooha* (Yengge의 병사 100명)가 전체 문장에서 서술되는 성분의 전체이고, 그 뒤에 부분에 대한 서술이 이어진다. 즉, *be*가 결합한 성분이 내포문 주어들의 전체를 나타내며, 목적어를 표시하는 표지로는 기능하지 않는다. (22나)에서 *nikan* (한인)은 전체이고, *duite nikan* (한인 네 명씩)은 부분이다. (22다)는 다른 두 예문과 달리 -ngge의 예문처럼 분사 어미와 *be*가 결합한 것이다. (22다)에서 *ilan ukanju genehe* (세 도망자가 간 것)는 *be*와 결합되어 있고, 뒤의 서술되

는 성분들의 전체를 나타낸다. 즉, juwe niyalma (두 사람)와 emu niyalma (한 사람)는 각 내포문의 목적어이고, ilan ukanju genehe는 두 성분의 전체이며 무엇에 대한 서술인지를 지시하여 준다. (22)에서 제시된 예문에서 문두 성분은 후행하는 성분의 주어진 정보이고, 무엇에 대한 서술인지를 보여준다.

종합하여 보면,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보이는 구문에서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문장 내에서 화제로 기능할 수 있다. 한국어의 ‘코끼리는 코가 길다’와 같은 문장에서 전체에 해당하는 ‘코끼리는’이 화제로 기능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보이는 구문에서 명사화소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이 뒤이어 서술될 성분의 주어진 정보이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서술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구문에서도 -ngge는 화제인 비논항 성분을 구별해주는 표지로 기능한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만주어 명사화소 -ngge가 붙은 성분이 동사의 의미에 의해 함의되는 의미역을 구현하지 않는 용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들은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우선, 후술되는 명사와 동일한 대상을 표현하는 비논항 성분은 일종의 화제인 제시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ngge는 구별 표지임을 보였다. 그런데 서술어를 반복하는 비논항 성분과 서술 대상을 제시하는 비논항 성분, 후술되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비논항 성분,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서 전체에 해당하는 비논항 성분도 연결되는 -ngge에 뒤이어 나오는 서술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화제는 ‘대하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견 차이가 있으

나 어떠한 대상에 대한 말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화제인 성분은 문장의 가장 앞에 위치한다.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문두에 위치한다. 따라서 -ngge가 붙은 비논항 성분은 문장 내에서 화제이며, 이때 -ngge는 화제인 비논항 성분과 다른 성분을 구별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논 저】

- 김영희(1989), 「한국어 제시어의 문법」, 『주시경학보』 4, 서울: 탑출판사.
- 도정업(2018), 「만주어 대등 접속문 구성에서 분사 어미의 분포와 특성 — 『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 『언어학』 82, 한국언어학회.
- 박은용(1969), 『滿洲語文語研究(一)』, 대구: 螢雪出版社.
- 이선웅(2005), 「국어의 문장 제시어에 대하여」, 『어문연구』 33 (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정민(1992),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 — 개제 층위/단계 층위 슬어와도 관련하여 —」, 『국어학』 22, 국어학회.
- 최동권(2009), 「대용어 비교 연구 — 한국어 ‘것’, 몽골어 yum, 만주어 -ngge —」, 『몽골학』 27, 한국몽골학회.
- 최윤지(2016),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학근(1968), 「滿文으로 쓰여진 乾隆帝의 『御製盛京賦』에 對해서」, 『국문학 논집』 2,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최학근(1976), 「滿洲語의 格, 性, 數에 對해서 — 滿洲語文法(其二) —」, 『語學研究』 1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함병호(2016), 「제시어와 화제」, 『언어와 정보 사회』 28, 언어정보연구소.
- 早田輝洋(2015), 「滿洲語の多様な形態素-nggeの文法的位置付け」, 『言語研究』 148, 日本言語學會.
- 津曲敏郎(2002), 『滿洲語入門20講』, 東京: 大學書林.
-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滿洲語文語入門』, 京都: 京都大學校學術出版會.
- Chafe, W. L.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Subject and Topic* (ed. by Li, C. N.), Academic Press.
- Gorelova, L. M. (2002), *Manchu Grammar*, Leiden: Brill.
- Halliday, M. A. K. (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3.

- Kuno, S. (197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 Case Study from Japanese and English”, *Linguistic Inquiry* 3(3).
- Kuno, S. (1978), “Japanese: A Characteristic OV Language”, *Syntactic Typology: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Language* (ed. by Lehmann, W. P.),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 C. N. and S. A. Thompson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Subject and Topic* (ed. by Li, C. N.), Academic Press.
- Prince, E. F. (1992), “The ZPG Letter: Subjects, Definiteness, and Information-status”, *Discourse Description: Diverse Linguistic Analyses of a Fund-raising Text* (ed. by Mann, W. and S. A. Thompson),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Reinhart, T. (1981), “Pragmatics and Linguistics: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s”, *Philosophica* 27.
- Vallduví, E. (1992), *The Informational Component*, New York: Garland Publishers.

【약 어】

- 1 first person
 2 second person
 3 third person
 ABL ablative
 ACC accusative
 ANT anterior
 CAUS causative
 COMP complementizer
 COND conditional
 CVB converb
 DAT dative

DUR	durative
EXCL	exclusive
GEN	genitive
IMP	imperative
INCL	inclusive
N-	non- (e.g. NSG nonsingular, NPST nonpast)
NEG	negation, negative
NMLZ	nominalizer
NOM	nominative
OPT	optative
PL	plural
PST	past
PTCP	participle
PTL	particle
Q	question particle/marker
SG	singular
SIM	simultaneous
-	형태소 경계
=	첨사 경계

원고 접수일: 2020년 1월 10일

심사 완료일: 2020년 2월 6일

계재 확정일: 2020년 2월 12일

ABSTRACT

The Function of Manchu Nominalizer *-ngge*
Attached to Non-Argument Component

Do, Jeongu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function of the Manchu nominalizer *-ngge* attached to non-argument components. In general, components with *-ngge* are either arguments or predicates in a sentence. However, there are examples in which the components with *-ngge* are non-arguments. This usage is productive enough to account for 19% of the use of *-ngge* of *Manwenlaodang*, which is the material of this study. Non-argument components with nominalizer *-ngge* appear in five types. These five types of usage all show what they are talking about and they are located in the initial position of the sentence. These characteristics are consist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pic. Thus, the non-argument component with *-ngge* is likely to function as a topic in the sentence, and *-ngge* can be considered to function as a distinguishing marker.

* Lecturer, Departmen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